

與 국회서 단결 외치며 ‘결속’ vs 野 광화문서 ‘탄핵’ 시국선언

탄핵 정국, 여야 격돌

권영세 “당 지도부 믿고 단결 보수, 실력·품격으로 野 압도해야”

박찬대 “헌재, 만장일치 파면만이 단결 탄핵 지연 땀 국민 고통 가중 커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전국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17일 당원과 당직자를 국회로 불러 모아 내부 결속을 다진 반면,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비상시국선언을 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과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를 열고 ‘단결’을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뽕뽕 뭉쳐서 반드시 뚫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리고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당 지도부를 믿고 잘 따라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수 정당은 실력과 품격에서 다른 당을 압도해야

한다”며 “앞에서 정치하는 의원뿐 아니라 지역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도 실력과 품격 모든 면에서 다른 당 사람을 압도하고 우리 당 지지를 확실히 끌어내도록 앞장서서 활약하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제 우리에게 또 대한민국 명운을 건 큰 선거를 치러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며 “그럴 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열린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비상행동’ 긴급시국선언 집회에 참여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고 ‘윤석열탄핵의원연대’ 소속 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단식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시국선언 정당인 모두발언에서 “12·3 비상

계엄 내란은 명백하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후진 독재국으로 만들어 장기집권하려던 천안공노할 사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쟁이 결코 될 수 없는 사안인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마치 정쟁인 것처럼 본질을 몰타기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이 내란을 옹호하며 정

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지 않고 있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커지고 국민은 극단적 대립과 대결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뿐”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긴급시국선언에 참여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에서 온 자영업자 박 모씨는 “비상계엄 이후 내수가 침체된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고 할 정도다. 원래 밤 10시에 마감하는데, 요새는 장사가 너무 안돼서 저녁 8시에 손님이 식사 중이시라고 해도 마감을 일찍 한다고 빨리 드셔달라고 부탁한다”며 “헌재가 빨리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경기도 살아날텐데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긴급시국선언 집회 참여자들은 종로구 안국동 헌재 앞으로 행진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17일부터 윤석열 탄핵 촉구 릴레이 1만배를 광화문 광장에서 3인1조로 시작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승복하라” 압박... 野 “尹 대통령이 먼저 책임져야”

정치권 ‘승복’ 공방 격화

與 “국가 혼란 막으려면 승복해야” 野 “계엄 선포尹, 책임 먼저 져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면 한국 사회의 일대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헌재의 선고를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다만, 야권은 당연한 이야기이며, 정작 탄핵심판 승복 메시지를 내야할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헌재 탄핵심판 승복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의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이고,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최고위원. /뉴시스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다. 승복해야만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

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승복을 해야할 당사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인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여온 태도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투쟁을 하지 않고 기존과 같은 기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의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는 ‘개별 의원의 행동’이라며 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향해 “제발 말만 하질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그 동안 헌재재판관 인신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

명하라고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징계하라”며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과 윤상현·서천호 의원을 제명하고, 극우집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징계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승복 메시지를 요구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정치권의 승복약속 요구가 있다. 당연하다.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며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갈등, 헌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한다”면서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인 국가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이 마지막 한 점 양심을 확인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보수층 ‘대항마 부재’... 이재명, 양자대결서 모두 앞서

李 적합도 46.9%, 김문수 18.1% 李, 김문수 등 모두 20%p 이상 격차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정당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으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에 대한 진보 지지층의 몰입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반해, 보수 지지층은 아직 뚜렷한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발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18.1%로 뒤를 이었다.

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2.4%) 순이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 김동연 경기지사는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를 기록했다.

야권 후보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51.4%이며, 여권 후보의 총합은 39.5%

다. 기타·없음·잘모름은 9.1%로 나타났다.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자 야권 지지층의 결집력이 높아지고, 여권 지지층은 여러 후보가 분산된다는 응집력도 떨어진 상태로 풀이된다.

차기 대선 양자 가산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의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 양자 대결은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로 26.2%포인트 차이였고, 홍준표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2.3%, 홍 시장 25.0%로 27.3%포인트 격차였다.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로 33.2%포인트 차이였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1위이며, 나머지 야권 후보들은 7~10위를 기록하고 있다. 2~6위는 여권 후보들이 지지율을 나눠 갖고 있다. 양자 대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대표의 지지율이 50%를 넘으며, 여권 주자들과 20~30%포인트의 격차를 벌리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야권 지지층의 경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있지만, 여권은 아직 ‘이재명 대항마’를 선택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나타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항마’가 선택되더라도 야권 지지세가 더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무선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